

직계가족모임 8명까지 허용...광주·전남 유흥시설 제한 완화

결혼식 등 500명 미만 가능 돌잔치 5인 제한 예외 적용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은 유흥업소 영업 제한이 풀리는 등 다소 완화됐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같은 기간만큼 유지된다.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2단계·비

수도권 1.5단계=정부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2차례 연장되면서 한 달 반배 이어지게 됐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이 지금까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광주시 등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밤 10시까지) 제한도 2주간 계속된다.

반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에선 일부 조치가 완화된다. 정부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비수도권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의 전제 하에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방문판매 직접홍보관의 경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서도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이 유지된다.

◇영유아 동반모임·상견례 등은 8인까지 허용=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감염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2주간 더 이어가되 일부 예외를 뒀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결혼을 위해 상견례 자리를 갖는 경우에는 8명까지 모임 수 있도록 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지금까지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영업을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해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방역관리 총괄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되고 마스크 착용, 테이블간 이동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 클럽 등 영업제한 해제되지만 춤추기 등은 금지=광주시 등 비수도권에선 유흥시설 영업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강도 높은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신고·허가 면적 8㎡당 이용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고, 룸당 최대 4명만 모임 수 있다. 노래는 아크릴판 설치로 전제로 1인만 부를 수 있다. 클럽과 나이트클럽 등에선 춤추기가 금지되며,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은 테이블·툼간 이동이 안된다. 콜라텍은 춤추기를 할 수 있지만,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는 장갑 및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다른 모두 행위자와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작가회의, 미안마 응원 릴레이 연대시〈1〉

미안마 사태가 혼돈 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광주전남작가회의는 80년 5월 광주학살사건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펜'으로 미안마 시민들과 연대를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80년 김준태 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광주일보(옛 전남매일신문)에 게재해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듯이, 이번에도 시민들의 시를 통해 미안마의 진실을 알리고 미안마 시민들과 연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6면〉

미얀마에서 제비가 날아온다!

- 총칼로 권력을 쥔 자는 총칼로 망한다

김준태

1. 제비가 날아온다

자기의 종족을 자기의 민족을
자기의 국민을 총칼로 죽인 자는
총칼로 멸망하리라 그의 무덤에는
풀잎도 돋지 않으리라 아 자기 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기 나라의 소년소녀
젊은 청춘들을...자기 나라의 꽃과 새들에게
총칼을 휘둘러 권력을 잡은 자는 저승에 가서
두 무릎에 대못이 박히고야 말리라 그렇다!
그렇다! 총구멍에서 나오는 정의는 독사의
혓바닥에서 나오는 독(毒)에 다름 아니다
총칼로 권력을 쥔 자는 총칼로 망한다
아무도 미얀마의 하늘을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미얀마의 꽃과 새와 별들의 노래를
그 아름다운 사랑과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아아아 미얀마에서 제비, 제비들이 날아온다!

2. 미얀마 제비

먼 남쪽나라 Myanmar에서 날아온
죽은 제비들을 광주 '망월동묘지'에
묻어주었더니 제비꽃으로 피어나ندا
아 보라색 제비꽃으로 피어나 운다
가을에는 미얀마로 돌아가겠다고!!

3. 미얀마 / Myanmar!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전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제10대 5·18기념재단 이사장 역임 ▲시집 '광주로 가는 길' 등 다수



김영록 지사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국비 반영 총력”

도민과의 대화 광양시 첫 방문...도립미술관 활성화·코로나 피해 지원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양항 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마린베이 조성, 남해안남중권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건립 등 광양시가 추진중인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4일 “김 지사가 지난 12일 광양시를 시작으로 22개 시·군의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광양시 도민과의 대화는 코로나 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행사장에 참석하도록 하고, 주민 180명은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 함께 했다. 백운식 광양경제활성화본부 회장은 광양항과 울촌산단 연결도로(사업비 3118억원) 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5억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타가 경제

성만이 아니라 지역균형요소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나광진 광양시 예총 회장은 광양에 들어서 오는 22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 도립미술관 활성화 방안을 물었다. 김 지사는 “전국적인 미술애호가들이 찾을 수 있는 기획 전시를 계속 하면서 소장품도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명칭 변경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지만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영상 참석자들은 코로나 19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상공인, 화훼재배농가, 여행업체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이어 이장배 진월면 이장, 윤우현 중마동 통장협의회 회장, 광양읍 강대원 주민자치위원장, 김길용 전남도의원,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등이 이순신대교 유지비 70억원 국가 부담 등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순신대교 유지비와 관련 “여



‘옴즈온전,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도지사와 광양시민과의 대화가 12일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수국가산단에서 정부에 내는 세금이 4조원이 넘는 데 광양시나 전남도에 대교 유지비를 부담하리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며 이는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도민과의 대화는 오는 17일 무안, 25일 곡성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화이자 백신 공급일정 맞춰 광주 3월·전남 6월까지 접종센터 앞당겨 설치

광주시와 전남도는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공급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4월까지 코로나19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서둘러 설치하기로 했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남구 관내 다목적 체육관 내 지역예방접종센터 설치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이달 내 설치하기로 했다.

남구 지역예방접종센터는 오는 7월께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지역별 백신접종 현황을 파악한 질병청은 속도감 있는 백신 접종

을 위해 우선 설치 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광주에선 서구 염주체육관 지역예방접종센터가 시범 센터로 지정돼 이달 설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되는 남구와 서구에선 이르면 3월 말 또는 4월 초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는 오는 19일, 남구는 내달 4일 모의훈련을 실시해 차질 없는 예방 접종을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도 22개소 중 10곳을 서둘러 설치하

기로 했다. 화이자 백신 공급이 빨라짐에 따라 예방접종에 신속하게 대비해 집단면역 형성을 앞당기기 위해서다. 화이자 백신은 지난달 5만 8500명분에 이어 이번엔 추가로 5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으로, 접종대상자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담양, 고흥, 화순, 장흥, 해남, 영광 등 총 10곳의 지역예방접종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12개소는 6월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일합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투자 쟁수도권
고수익보장
20년경력. 010-3605-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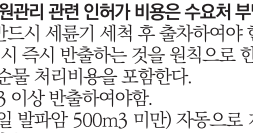
매각공고

1. 입찰내용: 발파암 매각
2. 매각물건의 표시
가. 적치장 위치: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일원 (보성-임성리 6공구 현상)
나. 매각예정수량: 31,672m3(자연산)
3. 입찰방법: 입찰 매각 입찰
4. 현장설명: 생략(문의 061-463-6630)
5.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등록 마감일: 2021년 03월 16일(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1년 03월 16일(화) 11:00, 간설사업관리단 사무실 (주소: 전남 영암군 서호면 청룡리 605-1번지)
6. 입찰참가자격
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전적서를 시한 내에 제출한 자
나. 국제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규정에 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 기 암매각 관련 협약 위반업체 제외
라. 동 사업구간 낙찰금액 확인 및 동등 이상 제시공급 업체 입찰 참가 허용
마. 입찰일 현재 당 현장 내에서 운반인행 중인 업체는 제외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자수별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발파암 매각금액 등 경제성 및 계약이행능력을 검토결과 낙찰자 자수별 1인 선정
나. 계약이행능력은 최종 낙찰자 선정 전 사전검증(반출계획, 반출위치, 반출방법)을 통과해야 함
다. 경제성 검토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자수별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기한 이내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후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8. 기타 특약사항
가. 낙찰자 결정된 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해야 함.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적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반출 전 낙찰금액 전납 후 반출하여야 함.
라. 운반, 안전, 환경, 민원관리 관련 인허가 비용은 수요자 부담으로 견적하여야 함.
마. 운반관련 차량은 반드시 세륜기 세척 후 출차하여야 함.
바. 적지 후 반출 요구 시 즉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암매각 처리 시 불순물 처리비용을 포함한다.
아. 1일 발파량 500m3 이상 반출하여야 함.
자. 암 반출 지역 시(일 발파암 500m3 미만) 자동으로 계약해지되고 선납한 매각대금은 반환하지 않음.
참. 참가 매각예정수량은 발주처 및 현장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기타 발파암 반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반출 후 매수인의 불법적지, 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해야 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청구, 행정기관 등에 접수된 민원, 언론보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보성-임성리 제6공구 간설사업관리단 ☎ 070-4458-2953

•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 담당자 ☎ 062-602-6332

2021년 03월 15일



대지급매

위치 광주 상무지구
치평동 884-6

면적 2,816㎡(853평)

금액 71억

(부동산 중개인 사절합니다)

문의 010-6432-5070

공 고 문

여수시 평여동 560-3번지

위 땅은 개인 사유지이므로 무단출입 및 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사용을 해야 하니 무단 침입되어있는 나무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모두 옮기셔야 원상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원상 복구되지 않을 시 나무는 임의로 처분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은 물론 토지 임차료 부과 등 법에 의하여 처리하겠으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피해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15일

TEL. 010-4904-2334

합병및주권제출공고

2021년 3월 12일 개최된 다음 회사들의 주주총회에서 청담건설 주식회사가 합성건설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올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갑” 청담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여산길 10-18 대표이사 정 동

“을” 합성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여산길 10-18 대표이사 정 동

주식의 병합 및 주권제출공고

2021년 3월 12일 입주주총회에서 1주와 해면당 5,000원의 주식 2주를 병합하여 1주 금액 10,000원의 주식 1주로 각 변경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주식병합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 및 주권을 가진 자들은 공고의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및 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주식병합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5일

합성건설 주식회사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서문여산길 10-18 대표이사 정 동

합병공고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상성철광(“갑”)과 주식회사 동인(“을”)은 2021년 3월 12일 각자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사의 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분은 본 공고제출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갑” 주식회사 상성철광 (tel: 062-956-0490)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02

대표이사: 양인우

“을” 주식회사 동인 (tel: 062-956-04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704

대표이사: 양동혁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69년을 밝히려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69년을 밝히려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69년을 밝히려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69년을 밝히려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

光州日報